



주빌리소식지

JUBILEE NEWS LETTER

April 2024, 제17호

교회 표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죽음을 이긴 예수

요한복음 20:11-23

몇 년 전 타임지가 ‘예수 부활’을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제목이 ‘Finding God in the dark’였습니다. Barbara B. Taylor 목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The Resurrection happened in a dark cave” (부활은 어두운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어둠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 해주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꼭꼭 잠가 걸려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고 죽은 것을 가슴 아프게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고 어두운 경험이 그들의 무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열지 못합니다. 아픔이 클수록 슬픔이 클수록 자기 무덤을 열기 어렵습니다. 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무덤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무덤은 시간이 지나면 가로막은 돌이 쉽게 열리기도 하지만 어떤 무덤의 돌은 사람이 열지 못하기도 합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던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관참다.

오늘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의 무덤을 부등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나이든 분들은 나이든 분들 대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못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지만 우리를 다시 제자로 쓰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 한심한 인간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위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 인생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FOCUS

후러싱제일교회 사람들

- 교회 빼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 김현진 장로

300초의 고백

-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작은 생각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유영욱 권사
-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은혜, 윤관호 장로
-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화자 장로

선교지 소식

- 예수사랑교회, 김대욱 목사

사역자 소개

- Pastor Kaylie Ng

FUMC 소식



후러싱제일교회 사람들

교회 빼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

김현진 장로

“내 이야기는 뭐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전격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할라 치면,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은 이야기 밖에는 사실 할 것이 별로 없어요. 내 삶에서 교회 빼고는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인터뷰 시작하자마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도 자랄 적 이야기를 들려달라 하니 마지못해 시작을 하셨다



◇ 교회앞에서 김현진장로, 김경애 권사

김현진 장로님은 도봉구 창동에서 1948년 태어났다. 부모님은 농사꾼이셨다. 당시 도봉구 창동은 아직 경기도에 속해 있었고, 논과 밭이 많아 농사짓는 분들이 많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장로님은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야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대를 하였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에는 육군이나 공군 등 일반 군대 징집은 영장을 기다리다 받고 군대에 들어가면 36개월을 복무해야 했다. 그런데 해병대는 달랐다. 일반 군대보다 복무 기간이 1년여 짧은 데다가 지원을 해서 자진 입대를 할 수 있었다. 당시 월남전도 있고 해서 목숨을 거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복무 기간이 짧으니 얼른 다녀와서 농사일을 하며 집안을 돌보아야겠다 생각하고 해병대에 지원하였다. 1967년 2월 입대, 예정대로라면 1969년 초에 제대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입대한 지 1년 만인 1968년 1월에 김신조 사건이 터졌다. 북한의 124군 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이다. 휴가 나갔던 군인들은 모두 비상이 걸려 복귀해야 했고, 모든 군인의 제대가 금지되었다. 제대 날짜만 기다리던 고참들은 밤이면 밤마다 부하들 때리는 것으로 화풀이를 하였다. 군에 있을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무척 괴로웠던 군 생활도 1970년 제대를 하며 마감하였다.



◇ 해병대 시절 김현진 장로

제대 후 농사를 지으려 하자 형님들이 농사는 우리가 지을 테니 너는 삼촌이 하는 중소기업에 들어가 삼촌을 도우라고 하였다. 삼촌 회사에 가서 일을 배우며 공장장이 되었다. 숙식은 삼촌 댁에서 해결하였다. 원래 장로님은 외향적이고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며, 뭐든지 2등은 싫고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직진만 하는 그 성격대로 열심히 일만 했고, 다른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월급을 받으면 당시 어려웠던 둘째 형님을 돕기도 하고 살았다. 어느날, 누님이 ‘너는 운동만 좋아하고 잘난 척도 심하니 근처에 여자가 없다’며, 이웃의 아는 처자를 소개해 줄 테니 오라고 하였다. 누님 집 앞 다방에 가니, 누님이 너는 옷도 없냐고 핀잔을 주었다. 회사에서 일하던 작업복 셔츠 바람으로 간 것이다. 장로님은 소개받은 그 처자, 지금의 김경애 권사님과 얼마 지나지 않아 1977년 10월 결혼을 했다.

장로님은 친구들을 좋아해 자주 만나 즐기는 것 외에는 오직 회사와 가정에만 충실하며 성실하게 일했다. 아내인 김경애 권사님은 그즈음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 장로님이 불교 집안 출신인 것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았다.

나중에생각해보니 수요일예배와 새벽예배였는데, 사람들이 밤이고 새벽이고 교회에 가는 게 이상해 보였다. 가끔 아내

가 같이 교회에 가자고 권했지만, 관심도 없어 매번 거절했다. 대신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다. 회사는 사업이 잘 되었고, 장로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로 꼽혔고, 주로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이었기에 인기도 좋았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도 적었던 당시에 장로님은 외제 차를 타고 다닐 정도였고 성북동 삼선교 로터리 근처에 2층으로 새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1981년 3월 8일. 김현진 장로님에게 결코 잊힐 수 없는 날이다.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가 새 차를 샀다고,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였다. 친구는 아직 초보운전자라 장로님이 새 차를 운전하여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광하는 소리와 함께 장로님은 의식을 잃었다. 눈을 뜨니 이상한 곳에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그렇게 눈을 떴다가 의식을 잃기를 몇 번. 다시 의식을 되찾아 눈을 뜨니, 아내가 보였다. 병원이라고 하였다. 장로님의 온몸은 눈만 남기고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턱부터 어깁죽지, 갈비뼈가 다 부러졌다. 어렵פות이 차가 뒤집어지던 순간까지 기억이 났다. 친구 안부를 물으니, 경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 있다고 하였다.

당시 보험제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친구의 차는 기본적인 책임보험만 들어 있었다. 차는 친구 차인데 운전을 장로님이 했으니 모든 치료비는 장로님이 스스로 다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눈 떠보니 친구의 아내가 와서 울고 있었다. 장로님의 중상을 보고 우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친구는 현장에서 즉사하였다고 한다. 과실치사라는 죄명이 붙었다. 그 친구의 부인 눈에 장로님은 원수였을 것이다. 친구의 장례를 치러주고 병원 치료비를 내고 재산은 몰수당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뼈만 남아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었다. 보증금 20만 원에 월 4만 원 내는 번두리 사글세 집으로 이사하였다. 아이들은 아직 4살, 6살이었고, 아내가 기본적인 살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도저히 헤쳐 나갈 방안이 없었다. 그때부터 장로님은 친구들이나 형님, 누님들에게 손을 벌리고 다녔다. 잘 나갈 적 친구들에게 밥도 많이 사고 도움도 많이 주었으니, 장로님이 어렵게된 상황에서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특히 장로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둘째 형이 당시 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자리에 있었고 사우디에 가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당신은 일단 동네 가게들에 외상을 지든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든, 조금만 버티면서 집안을 꾸려나가라. 둘째 형만 사우디에서 돌아오면 기본적인 살림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희망을 북돋아 주고 어찌어찌 어려운 상황을 참고 지냈다. 마침내 형이 사우디에서 돌아왔다. 형이 사는 강남 도곡동 아파트 앞 샤피ng 물에서 형에게 전화하여 물 안에 있는 다방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지 말고 네 아들들 선물도 사 왔으니 형 집으로 올라오라는 형에게 그냥 다방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형네도 많이 도와주고 형수 애 낳을 때 병원비도 내주고 했는데, 정작 죽다 살아나 완전히 곤두박질친 인생을 살고 있는 시동생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형수에게 서운한 마음이 응어리가 되어 남았기 때문이었다. 그 형수 앞에서 형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다. 생각지 못했던 형의 한마디, ‘내가 돈이 어디 있냐’는 소리에 장로님은 바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그날을 떠올리는 장로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비쳤다. 한여름, 찌는 듯한 더위의 버스 안 사람들이 하염없이 우는 장로님을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장로님은 버스에서 내릴 수가 없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버스비도 아까웠기 때문이었다. 집에 들어서는 장로님을 희망에 찬 얼굴로 반가이 맞는 김경애 권사님에게 형 직장 동료들이 와 있어서 말을 못 꺼냈노라고, 며칠 후 다시 가 볼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그날부터 실어증 아닌 실어증이 생겼다. 앞이 캄캄하였고, 사람들이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을 못 이루고 누워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전에 책만 읽으면 잠이 들던 것이 생각이 났다. 옆에 누운 아내의 머리맡에 무슨 책이 있었다. 저거라도 읽으면 잠이 올라나 하고 아무데나 펼쳐 읽었다. <잠언>이라고 되어 있었다. 잠을 자다가 쓴 책인가? 아니면 잠을 자려면 읽으라는 책인가? 자문하

며 읽어나가는데, 유난히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계속 읽게 되는 한 구절이 있었다. 반복해서 같은 구절을 읽는데 글씨가 점점 크게 보였고,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잠언 19:7) 나중에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경험을 장로님은 이때 하였다고 한다. 형에게,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던 자기 모습이 한 없이 부끄러웠고, 그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다.

이런 진리를 왜 그동안은 못 만났나?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 집사람이 가끔 이야기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나?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내가 갈 길은 이런 큰 깨우침을 준, 이 책을 쓴 사람에게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는 집사람을 흔들며 깨웠다. 새벽예배에 가자고, 당신이 가던 새벽예배에 나도 이제 같이 가자고 하였다. 그렇게 새벽예배를 드린 후 첫 주일에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자, 김경애 권사님이 이미 장로님 이름을 진작부터 등록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내게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갈 곳은 오직 교회 밖에 없었어요. 1982년에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해서 세례를 받고 이듬해인 1983년에 집사 직분을 받았고, 1988년에 권사가 되고 1994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뿐 아니라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주일 저녁예배(그렇다, 그때는 주일 오전에도 예배가 있었고 저녁에도 예배가 있었다)에 모두 참석했습니다”는 장로님. 오히려 믿음의 교만이 생길 정도였다고 한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은 값싼 은혜요, 천국 가더라도 가서 상급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다.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으로 큰 상급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라 믿는 장로님은 ‘나는 돈도 없고 다른 재주도 없으니 그저 전도에 열심을 내자’고 결단하였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년간 전도한 사람들 중에 세례 받는 이가 35명이나 된 해도 있었다. 속회를 인도하면서 최우수 속회상을 3년 연속 받기도 하였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최우수 교사상도 술하게 받았다. 전도를 1명도 못하는 장로님들을 보면 속으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였다.

어느날 한 교인이 당시 집사였던 장로님에게 물었다고 한다. “왜 예수를 믿느냐”고. 장로님은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 교인이 말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열심을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종로 뒷골목 건달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 하는데, 건달 같다니! 장로님은 스스로 본인의 인상이 그다지 인자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 행동거지가 거만하고 곳곳해서 교만한 모습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교회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종로 뒷골목 건달처럼 보였다니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또 이런 일들도 있었다. 남선교회 회의 중에 회장이 하는 말이 마음에 안들어 다투고 혈기를 부린 적이 있었다. 회의 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 성경책은 그대로인데 장로님 성경책만 감쪽같이 사라졌다. 지퍼가 달리고 성경 옆 삼면을 금색으로 바른 가죽 성경으로 큰맘 먹고 비싸게 산 것이었다. 또 한번은 장로님보다 어린 사람이 남선교회 회장이 되었는데 그 회장에게도 순종않고 대적하곤 하였다. 어느날 남선교회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데, 축구를 잘하던 그 회장을 이겨 먹으려고 무리를 하다가 그만 땅바닥 돌을 발로 차 발가락 뼈가 부러졌다. 발가락 때문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이 생겼다고 한다. 그때 장로님 마음속에 ‘그 사람 회장을 누가 시켰냐? 사람이 시킨 것 같으냐? 하나님이 임명한 것, 네가 대적하는 것은 나한테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음성이 들렸다. 왜 열심히 하는 내가 뒷골목 건달로 보였는가, 왜 내 성경책만 없어졌는가, 왜 멀쩡하다가 나만 다쳤나?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항상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서로를 높이고 세우는 사람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음의 시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아직도 교만하고 옛 성정과 혈기가 남아 있었음을. 이후 장로님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이니 절대 대적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었고, 자세 역시 꾸부정하게 늘 허리와 고개를 굽히는 모양새를 갖춘다고 고백한다. 교회는 주의 몸이므로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장로님은 1996년경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왔다. 후러싱에 도착하자마자 출석할 교회를 찾았다. 당시 후러싱제일교회도 지나간 적이 있는데, 교회에 불이 다 꺼져 있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장로님은, 교회는 늘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 모든 사람들이 자주 들고 가야 한다고 믿는다. 당시 선택한 교회는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어 선택했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다음 날 그 교회 중고등부가 다 같이 어딜 간다고 준비하느라 그리 분주했던 것이라 한다. 그렇게 장로교회 생활을 하다가 원래 다니던 감리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2017년, 새해 첫날 후러싱제일교회로 적을 옮겨 등록하고 다니게 되었다. 그 해 1월 1일은 마침 주일이였다. 교회에 등록하고 담임목사님의 심방을 요청했다. 심방을 오신 김정호 목사님이 부임 2년 만에 교인이 심방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김현진 장로님은 오직 후러싱제일교회 섬기는 기쁨으로 살고 있다.



◇ 신혼여행으로 간 경주 안압지에서

2023년 가을 세 번째 뇌일혈로 장로님은 말을 어눌하게 하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 좀 그만 하고 여생 입다물고 살아라 하시나 봐요”라며 허허 웃는 장로님. 은혜를 받고 난 뒤, 나서는 것을 외려 부끄럽게 여기며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교회만 잘 섬기고 싶다는 장로님. 소망이 있다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기 바쁜 일반 성도들과 달리, 우리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봉사자분들이 교회 일을 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점점 믿음이 깊고 커져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천국 가서 큰 상을 받기 바라는 것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우리 후러싱제일교회 교인 모두가 성도의 도리, 곧 예배와 헌신 봉사하는 일에 모두 열심이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300초의 고백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생각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유영옥 권사



오래 전, 어느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운이 없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을 하러 가고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멸치국수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남편이 점심

때 멸치국수 두 그릇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설명해 주기를 그 당시 빨래방에 자주 오던 친구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하나 더 만들어진 국수를 사서 전달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아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국수를 먹고 저는 이상하리 만치 몸과 마음이 아주 시원한 것을 느꼈고 몸이 나아져서 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부족한 사람이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어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생각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일 이후 제가 교회로부터 속장을 맡아 달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속장을 맡은 적이 없었기에 망설여졌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속장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속장보다 믿음이 더 좋은 속원들에게 오히려 신앙생활을 배웠고 속회를 진행해야 하는 까닭에 성경을 보게 되면서 성경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회사역을 통해 세우고 성장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속원들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속장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늘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계속에서 때론 오해를 받기도 하였고 좋은 의도로 한 일들이 미움을 받는 일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친교실 봉사를 하다가 한 권사님을 잘 챙겨 드렸는데 그 일이 가족

에게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오랜 시간 미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고 기다리도록 성경을 통해 늘 말씀하셨습니다.

십여년이 지난 최근에 그 권사님의 딸을 널싱 홈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 대화를 통해 그 가족과 저에 대한 오해를 푸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신앙생활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빨래방을 운영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것은 기계가 고장나는 것이었습니다. 늘 빨래방 지하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날 꿈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하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어서 그 쪽을 바라보니 아주 하얀 옷을 발목까지 입으신 한 분이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옷자락과 발목만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빨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길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온갖 징그러운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그곳을 건너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와 함께 그곳을 건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늘 깨달지 못하고 두려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모든 어려운 과정을 함께 걸어주시고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홈케어를 신청했는데 한 사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저를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은혜

윤관호 장로

저는 2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나 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보살핌만 받고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홀로 울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교복을 깨끗하게 다려 주시어 용모가 단정해 보였고 성격이 명랑한 편이라 학교 친구들은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경기도 광주에서 양조장을 경영하셨으나 저는 본 적도 없는 작은아버지가 공산주의자로 월북을 하여 그 여파로 집안이 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 가신 후에도 땅이 많이 있었으나 재산을 상속한 저의 형이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가려 했으나 삼촌이 월북자라 안된다는 사실을 고교 3학년 2 학기에서나 알게 되어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왔는데 연좌제로 저의 앞길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자로 나가기도 어렵겠다고 지레 짐작하니 심적으로 위축됐고 흔들렸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춥다는 강원도 철원 문혜리에 주둔한 6사단 2연대 인사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하여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으나 일과 후에는 고참병들이 군기 잡는다고 겨울에도 뺨스 바람에 단체로 집합시켜 언 땅에 엎드려빠쳐 시키고 5 파운드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에 빠따를 쳐서 내무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밤에 연대 후문 보초를 서면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니 신비스러웠습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후 영내에 용문교회가 건립되어 간혹 교회에 갔으나 고참들 눈치가 보여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연대가 화지리 북쪽으로 이동하여 철책선 GOP 지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후방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야전 세례식을 할 때 연병장 맨땅에 무릎 꿇고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참병이 되어 시간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 일과 후에 간혹 군종과 사무실에 들러 성경말씀을 듣고 찬송가도 불렀습니다. 그때 배운 찬송가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등등입니다. 주일 외출 때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안에 있는 동네 작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여성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천사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어 제가 내무반장이되어 빠따를 치는 악습을 없애고, 신참들에게만 시키던 야간 불침번과 동초를 저를 포함한 모든 고참병들에게도 교대로 하게 했습니다.



제대 후 복학하여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아르바이트로 중3 학생을 가르치느라 바빠서 매주 가지는 못했으나 교회에 다녔습니다. 졸업 후 회사 다니면서 주일에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결혼 전에 지금의 아내와 함께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상사 주재원으로 미국에 온 후에는 어머니와 아내, 어린 두 딸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통해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전의 삶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 가족에게 좀 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해 아직도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시련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집한 채 정도의 재산을 친척 여동생 남편한테 맡기고 관리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전부 횡령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국 출장 시 확인하고 나서 형사고발하여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인정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그 사람을 믿어도 되냐고 전에 몇 번 말할 때마다 그 친척 여동생 부부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 하고 제가 통명스럽게 말하곤 했는데 아내한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억울한 생각을 하면 아래 배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라 화병으로 죽는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았습니다. 그 후 새벽기도회도 더 열심히 나갔고 교회 봉사활동도 더 많이 했습니다. 주일 새벽에 집에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부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 드리고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했지만 쉽지 않은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 모임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봉사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이 깊어 질수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변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도 잘 못하는 사람이 찬양대에서 있다 보니 찬양을 부르지 않는 평소에도 저의 뇌파가 찬양할 때와 같이 움직이는지 제가 속으로 찬양곡을 부르는 것을 듣는 것 같은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던 어머니가 미국에서 102세까지 장수하신 것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건강도 지켜 주시고 두 딸도 고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 다니게 하셨고 어엿하게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바탕위에서 안일과 나태에서 벗어나 제 자신이 날마다 되돌아보고 새로워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 합니다. 순수한 감성으로 보니 산책길에 만나는 꽃, 나무, 새 등 주님이 만드신 자연이 아름답다워 감탄하고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신실하신 교우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 기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화자 장로



저는 5남매 중 셋째 딸로 부산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아버지 직장 관계로 서울로 이사와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TV 방송국에 뽑혀 노래 했고, 교회에서도 노래를 하다가 주일학교에 출석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4월 12일이면 남편 이흥룡 장로를 같은 직장에서 소개로 만나 결혼한 지 55년이 됩니다. 남편은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고 있다가 더 공부하기 위해 유학준비를 했고 미국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에 Computer Science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비 관계로 한학기 휴학하고 LA친구가 있는 곳에 임시거처를 두고 학비를 벌기로 했는데, 그 당시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낮에는 가드너, 주유소, 높은 빌딩에 매달려 유리창 닦는 일, 밤에는 화장실 청소 등이었고 열심히벌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7남매 중 장남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연세대 교목으로 계시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딸이 3살이었는데 미국에 데려오면 봐줄 수가 없다고 해서 한국에 두고 저는 LA에 도착해 보니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봉제공장에 취직이 되어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이민국에서 영주권 조사가 나왔습니다. 주인 멕시코 여인이 저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동료들에게 맡기고 신발을 벗어 양쪽 옆구리에 끼고 조사관이 지키고 있는 1층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착해 보니 조사관이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빨리 맨발로 어딘지도 모른 채 뛰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생각 끝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주권이 있어야겠

다고 생각하던 중 남편이 어느 목사님의 권유로 LA 문화 회관 직원으로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기로 하여 거의 노동 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목사님께서 다른 분에게 돈을 받고 영주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너무도 큰 배신의 아픔을 겪으면서 LA를 떠나기로 하고 남편과 나, 딸, 그리고 자그마한 TV, 옷가지들을 가지고 차로 대륙횡단을 하여 8일 만에 뉴욕에 도착해 보니 날씨와 주거환경과 사람들이 너무도 생소하여 다시 LA로 돌아가야겠다고 몇 년을 되내며 살았습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겠기에 교우분의 소개로 야채 가게를 하기로 하고 영업용 냉장고와 선반 일체를 직접 만들어 장사를 시작하고 보니 야채, 과일 등 이름도 생소한 가운데 장사를 하는 게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6일 일하고 주일에 교회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던지요. 설교 말씀 듣고 찬양드리며 힘을 얻고 다시 일을 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만큼은 저에게는 6일의 고된 노동이 말끔히 씻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집도 마련하게 되었고 차츰 안정된 생활이 되었는데 저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목에 호두만한 혹이 생겨 내과에서 주사기로 물을 여러 번 빼도 줄지가 않아서 갑상선 전문의에게 진찰받은 결과 갑상선암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니 맡겨라!” 하는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수술을 하면 성대를 건드릴 수도 있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후 수술이 끝난 직후 “암이 아닙니다” 하고 의사가 귀에 들려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야!야!” 하면서 소리를 내어 보니 제 귀에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 드렸습니다.

수술 후 몇 달이 지나 후유증으로 디스크가 생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재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치료 받기 위해 진찰대에도 올라 갈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겨우 누워 아주 큰 주사를 맞은 후 저는 참으로 따스한 손길이 저의 아픈 허리를 부드럽게 만져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거뜬히 일어나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지금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1983년에 후러싱제일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성가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찬양드리는 것이 내 삶이요 내가 드리는 기도요 나의 간증이라 고백합니다. 찬양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못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예배 속에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 열심을 다해 말씀 붙들고 주님 닦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에게도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며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과 함께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을 마치고 싶습니다. 걸을 수 있을 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힘 달는 데까지 제 자리 지키며 봉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같은 날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평신도 사역을 같이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생전 주님께서 주신 재능, 나눔을 모두 생전에 쏟아붓고 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리노이주 어바나-삼페인 예수사랑교회 김대욱 목사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 삼페인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삼페인의 꽃샘 추위는 악명이 높는데 이번 봄비 이후에 찾아올 포근한 봄날을 기대해봅니다. 2024년 봄학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봄학기가 끝나가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른 때보다 유독 많기 때문입니다. 매해 5월이면 정들었던 학생들과 작별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번 5월은 유난히 마음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예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1. 교회학교 모임 시작

4월부터 예수사랑교회의 교회학교가 시작됩니다. 현재 예수사랑교회에는 5명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학교를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두 분의 집사님들이 교사로 자원해 주셨고, 이로 인해 교회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캠퍼스 타운에 위치한 청년 미니스트리이지만 전 세대가 함께 모이는 교회로의 변환이 꼭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사랑교회에는 교회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수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교회학교가 없어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사랑교회가 교회학교를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전하고 교육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일 오전 예배 시작

현재 예수사랑교회는 주일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월부터 교회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예배가 필요하고, 간혹 부득이하게 오후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 11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예수사랑교회는 주일에 1부(11:30)와 2부(오후1:00)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로운 예배를 통해 보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3. 에콰도르 단기 선교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에콰도르 쿠엥카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이 아동센터는 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과 교육 사역,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파송을 받은 장다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며, 단기 선교팀은 여름에 VBS와 영어 캠프, 문화 사역 및 전문 사역(미용, 건물 수리 등등)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콰도르 단기 선교는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엘라배마주 몽고메리제일감리교회 청년 단기 선교팀과 연합하여 떠나는 단기 선교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주일에 단기 선교 설명회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10명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선교팀이 몇 명이 꾸러질 지 모르겠지만 첫 발걸음을 시작했기에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에콰도르 단기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의 후원과 물질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역자 소개

Pastor Kaylie Ng

케일리 응 전도사

My name is Kaylie Ng, and I was born and raised in Hong Kong. Growing up, I had the privilege of being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which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my beliefs and values. I made the decision to dedicate my life to the Lord when I was 12 year old at a youth camp. It was my first time feeling God's love and presence so strongly that I chose to follow God the rest of my life.



제 이름은 Kaylie Ng입니다. 홍콩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특권을 가졌는데, 이는 내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2살 때 청소년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강하게 느꼈고 평생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When I turned eighteen, I made a significant decision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God led me to the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University in Kansas City, where I spent four years studying worship and music. The time I spent there truly deepened my understanding of God and fostered a profound relationship with God. It was transformative, eye-opening, and changed my perspectives on many aspects.

After that, God has called me to pursue a Master's degree in Leadership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Throughout my studies, God gradually revealed His specific calling for my life, leading me to the path of pastoral leadership. While I initially entered the program without a clear calling of what God has in store for my future, it was during my time at Asbury that God unfolded His plan to shepherd and disciple the next generation.

Now, as a pastoral intern at FUMC, one of my primary goals is to foster connections and build bridges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especially a bridge for the youth and the adults. I am eager to step into the role of a shepherd, to walk alongside the next generation, and to help them discover their identity in Christ and develop a deep-rooted relationship with Him.

18살이 되었을 때 미국으로 오기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캔자스 시티의 국제기도의 집 대학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4년간 예배와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보낸 시간은 하나님을 깊게 이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저를 변화시켰고, 눈을 뜨게 해주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의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캔자스의 애즈버리 신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업을 통해 제게 특별한 부르심을 점차 드러내 주셨고, 목회자로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명확한 부르심 없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애즈버리에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인도하고 제자로 만드는 계획을 펼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후러싱제일교회에서 목회 인턴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청소년과 성인 간의 연결과 이해를 촉진하고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음 세대와 함께 걸어가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FUMC 소식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및 성금요일 예배 (Good Friday Service)

3월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김정호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일곱가지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각 교구별로 특별 찬양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금)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한영 합동으로 온가족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7개의 말씀 묵상과 찬양이 드려졌고 참회의 기도문을 적은 용지를 십자가에 못박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사순절 묵상 영상

금년 사순절 묵상은 책이 아닌 1분 영상으로 제작되어 40일 동안 발송되었습니다.

친환경 실천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부활주일(3월 31일) 예배는 한영 온가족 합동 예배(3부)로 드렸습니다. 3부 예배에서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찬양대, 성가대 등이 연합으로 찬양을 드렸고, 세례, 유아세례, 견신례 및 입교식이 열렸습니다. 유아세례: Micah Yam, 이다빈/ 세례: 이경란/ 견신례: Arie Oh, Alyssa Kim, Dayoung Lee, Shiloh Kim, Jessica Li, Ara Ko, Janice Feng/ 입교: 장명규, 장경아, 이경란



교회내 게시판 Renew

본관 복도의 게시판을 새단장 했습니다. 한어회중 50주년을 기념해 '희년 목회 희년 선교'를 큰 주제로 해외선교, 지역사회 섬김, 구제사역, 교단 분담금 등의 현황을 담았고 세계 지도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17명의 국내외 선교지를 표시하였습니다. 오른쪽 게시판에는 부활절 메시지와 함께 교회 소식과 최근 행사 사진 등이 게시되었습니다.



MARCH 2024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25 | 26 | 27 | 28 | 29 | 1 | 2 |
| | 31 | | | |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교육관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교육관 엘리베이터와 체육관 입구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환영받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구에서부터 알려주자는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메시지 보드

149 St. 와 Roosevelt Ave. 코너에 LED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부활절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4개국어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복음 전파와 지역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FUMC 소식

유초등부

1. Link (3.10) 봄을 맞이하여 김성태 장로를 모시고, 씨앗을 심고, 모종을 가져갔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 사순절을 맞이 마태복음을 필사했습니다.



3. “예수님과 함께 한 마지막 7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활동했습니다. (3.30)



4.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3.31)



한국학교 개강

매주 토요일 21명의 아이들이 4명의 선생님과 함께 한글을 배우고,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문화와 역사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학교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UMC Youth Leadership Initiative

3월부터 Youth 그룹은 토요일에 정기 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FUMC 청소년 리더십 이니셔티브” (FYLI)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성경 교육, 함께 식사 만들기,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로 만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ARCH 2024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25 | 26 | 27 | 28 | 29 | 1 | 2 |
| | 31 | | | |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ANNOUNCEMENT

1. 단기 선교 안내

이번 여름 볼리비아와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와 EM 및 청년부 중심으로 온두라스 올림픽드림센터를 방문하여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성인들은 볼리비아 아동 결연을 맺는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고 현지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펼칠 것입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목회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4년 8월 19일(월)~23일(금)

신청 마감: 2024년 4월 14일(주일)

문의: 목회실

2. 미주 기아대책(KAFHI) 주관 빈곤 아동 결연

볼리비아 도시 빈민 아이들과 후원자 결연 맺기가 금년에 100명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정기 행정임원회 모임

일시: 4월 14일(주일) 4:00 pm

장소: 교육관 3층 예배실

4. 목회협조위원회 모임

일시: 4월 19일(금) 7:00 PM

장소: 컨퍼런스룸

5. FUMC Youth Discipleship Gatherings - Saturdays

중고등부 제자훈련이 토요일에 열립니다.

6. 중보기도센터 운영 안내

운영시간: 매주 (월)~(금) 새벽기도 후

장소: 1층 새가족실

중보기도 신청함은 1층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7. 복지위원 교육안내

교육내용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은퇴연금 SSA, 빈곤자 지원 SSI, 노인아파트 등 다양한 복지 내용

교육대상 : 교육 내용에 관심있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기 원하는 분들

교육 일시: 4월 매주목요일 7:00PM

장소 : KCS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SMALL CTR

청년예배 YOUNG ADULTS SERVICES

SUN 2:30 pm @소예배실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 유아부(만3세미만)

유치부(만3-4세) / 유초등부(K-5) 11 am

청소년 YOUTH (ED BLDG)

중고등부(6-12) 11 a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live/>

새벽예배, 주일예배, 수요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9 a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9 am cbsn(www.cbsnewyork.net)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 87.7 (앱 FM877)

10 pm 단비TV (Spectrum Ch.1487)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12 pm(정오) 단비TV (Spectrum Ch.1487)

토요일 9 p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1 pm/ 9 pm cbsn (www.cbsnewyork.net)

발행인: 김정호

편집: 뉴스레터팀

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

Tel. (718) 939-8599

Email: fumc@fumc.net